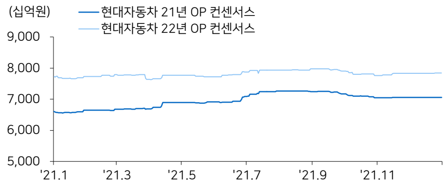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2. 1. 14 (F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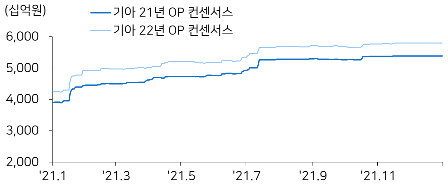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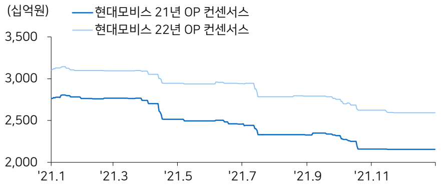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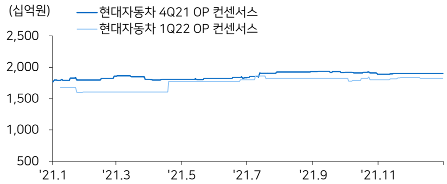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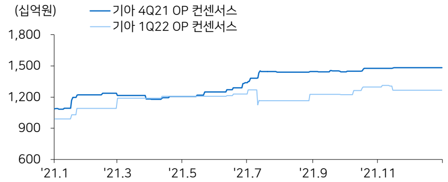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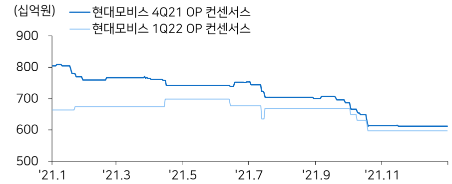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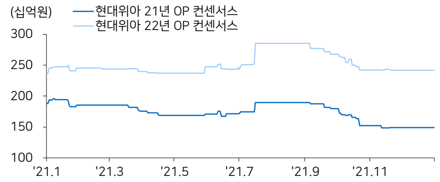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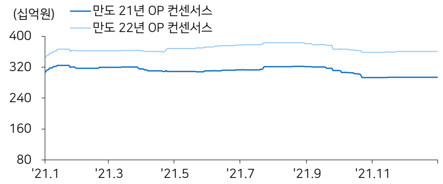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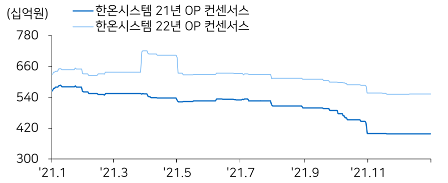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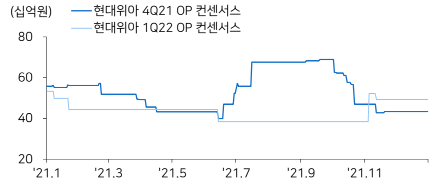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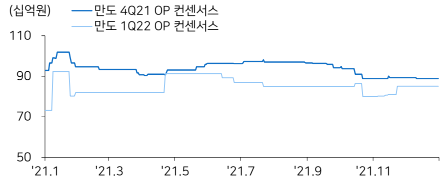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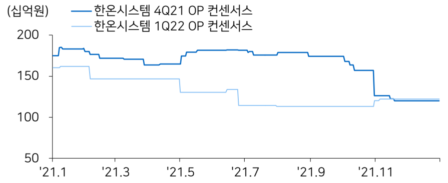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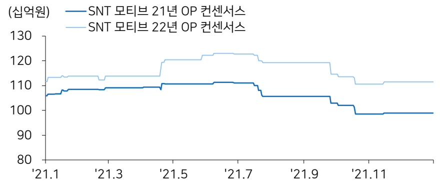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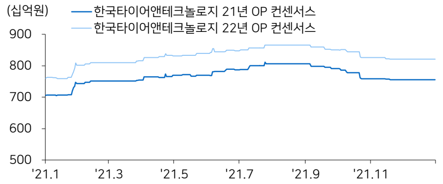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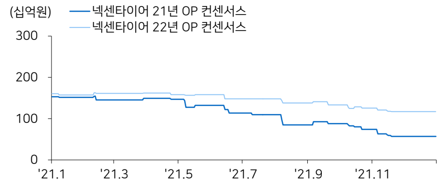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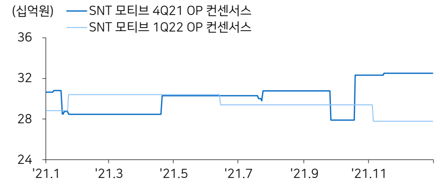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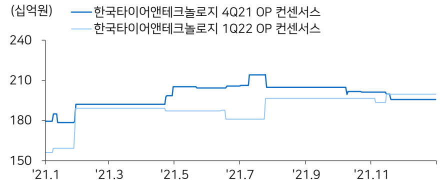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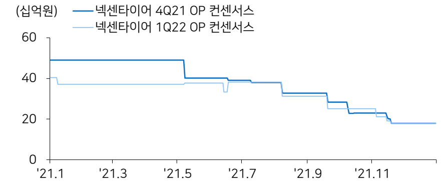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제네시스, 작년 글로벌 '20만대' 돌파…올해도 성장 기대감↑ (뉴스1)

제네시스는 지난해 yoy +52% 늘어난 20만1,415대를 판매. GV60/GV70/GV80 의 SUV 라인업과 미국 수출 물량이 판매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에서의 판매도 올해부터는 본격화할 전망.
https://bit.ly/3FqAEmJ

생산준비 완료' 현대차 인니 공장 가보니…"미래 바꾼다" (연합뉴스)

신설된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다음주 크레타부터 생산하고, 3월에 전기차 아이오닉5, 8월에 소형 다목적차량(MPV)을 내놓을 예정. 인도네시아가 니켈, 망간 등 생산국으로서 '전기차 허브'를 꿈꾸고 있는 만큼 전기차에 대한 현지 관심이 집중됨.
https://bit.ly/3KdobGK

Wind River deal gives Aptiv a big pool of tech talent (Automotive News)

Aptiv는 SW기업 Wind River을 43억 달러에 인수, SW/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기술을 비롯, 1,000명의 개발자/엔지니어 등 완성차 업계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의 직원 풀을 얻게 됨. 이번 인수로 OTA 부문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
https://bit.ly/3noRv3g

Tesla's Musk says 'working through challenges' with India government (Reuters)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여전히 인도 정부와 관세 인하 관련 협의 중이라고 밝힘. 테슬라는 인도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길 원하지만, 인도는 수입차량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 해외 업체들의 세금감면 요구는 현지 업체 반발을 촉발 중.
https://reut.rs/3tmWULS

운전자 개입없이도 자율주행.. '레벨3' 수준 G90 4분기 출시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해 4분기 레벨3 수준의 G90 자율주행차를 출시함. 시속 60㎞ 이하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에 최초로 탑재 예정.
https://bit.ly/3foq3OE

디지털 통해 2030년까지 車부품사 1200곳 미래차 진출 (뉴시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냄. 데이터를 수집 · 발굴해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품 · 완성차의 제조 지능화 등을 추진. 이를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부품사 1200곳의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https://bit.ly/3I6nGwi

Ford stock price charges past $100B on big EV plans and high demand (electrek)

F150 라이트닝을 비롯하여, 머스탱 마하E, 브롱코 등 유망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향후 북미 시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향후 BEV 60만대에 필요한 배터리 생산시설을 자체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주가 강세 지속 중.
https://bit.ly/3nqU9oV

BMW cautious on bringing batteries in-house despite rising sales (Reuters)

BMW는 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을 자체적으로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파트너들로부터 향후 몇 년간의 수요를 이미 확보했고, 향후 10~15년 어떤 기술이 등장할 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함.
https://reut.rs/3tuwbg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